



[산업] 삼성전자 스토리지 용량 한계 극복 08



Life

[라이프] 글로벌·젊은층 '매력' 식품업계 e스포츠에 빠지다 11



# 박원순 “中企는 산업의 중추... 글로벌 진출 적극 도울 것”

중기중앙회-박원순 시장 정책간담회 김기문 “돈맥경화 심화... 대책 필요”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지원 조합추천제로 소기업 구매확대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중소기업이야말로 우리나라 모든 산업·고용의 핵심이자 중추”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고 사라지면 국가적 손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생존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장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경쟁력 있거나 혁신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별히 중요한 만큼 이들을 위해 브랜드 마케팅,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우리 경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가 막 불거졌던 지난 3월 초에도 중소기업계와 긴급 간담회 자리에서 함께 머리를 맞댄 바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앞줄 5번째부터) 박 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당시 중소기업계는 박시장에게 코로나19 피해 최소화해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고용유지 지원금 확대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및 휴업보상금 지급 ▲중소기업 공제기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인사말 모두에서 “지난번 간담회에서 건의해주신 안건 가운데 고용유지지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이를 다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했다”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도 지난 30일 시의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영세 소상공인 방역 지원, 휴업보상금 지원 등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에 대해 잊지 않고 이번 서울시 3차 추경안에 공제기금 이차보전, PL보험료 지원예산을 반영해 주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코로나19 사태

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은 매출절벽을 경험하고, 유동성이 관철았던 기업조차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보증 확대,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직접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의 ‘돈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적극 노력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도 현상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힘을 써달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중소기업계는 박시장에게 서울 상암동 DMC센터에 ‘글로벌 마케팅 지원센터’ 설치 지원, 협동조

합 추천제도 등을 활용한 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차원에서 우리 중소기업들 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해 브랜드 마케팅부터 진출까지 전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인구가 5000만명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콜롬비아에 갔더니 대한민국 ‘K-POP’이 정말 유명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수도인 보고타에서 열렸던 경연대회에는 10~20대 약 3000명이 몰려 야단법석이었다. 여기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든 의류, 화장품, 주얼리 등의 상품을 갖다 팔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그런데 남미나 베트남 등에서 중국기업들이 마치 한국 기업처럼, 한국 사람인척하며 제품을 파는 것을 보고 우리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참외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하나의 브랜드로 현지 유통채널과 잘 연결하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서울시,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 손질해야

진흥지구 내 수혜 받은 기업 극소수 직접 도움 되는 프로그램 모색해야

서울시가 특정 지역에 밀집한 서울형 전략·첨단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진흥지구 내 업체 10곳 중 8곳은 지난 3년 전과 비교해 현재 산업환경이 악화하거나 비슷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흥지구는 특정 지역단위의 산업집적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시는 2010년 상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시내 총 12개소를 진흥지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중 6개 지구가 중앙정부로 이관되거나 사업 보류 중이다. 나머지 ▲종로 귀금속지구 ▲성수 IT지구 ▲마포 디자인·출판지구 ▲동대문 한방지구 ▲중랑 패션봉제지구 ▲중구 인쇄지구 등 6개 진흥지구에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이 작년 7월 10일부터 9월 4일까지 6개 지구 권장업종 사업체 7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흥지구 산업환경 관련 설문조사에서 14.2%는 악화, 65.8%는 비슷하다고 답했다. 개선됐다

는 20%였다.

진흥지구는 산업활성화 지원과 도시계획 인센티브(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제공을 결합한 서울의 대표적 산업클러스터 정책이지만 수혜를 받은 기업은 극소수였다.

오은주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권장업종 사업체에 직접 도움이 되는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수요 맞춤형 산업활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부담을 통한 자금규모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n

## 세종대로 보행거리... 서울청년센터... 하반기 서울생활 어떻게 달라지나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 보행거리 조성·하남선 개통 등 담야

올해 연말에는 광화문사거리부터 서울역까지 세종대로 1.5km 구간이 ‘서울 대표 보행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을 전자책으로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12월에는 1.5km 세종대로 구간(광화문사거리~서울시청~송례문~서울역)이 ‘서울대표 보행거리’로 다시 태어난다. 현행 9~12차로를 7~9차로로 축소하고 보행공간 확충, 전 구간 자전거도로 조성, 공유차량 주차공간 설치, 세종대로 가로숲 조성이 핵심 내용이다.

서울도심에서 경기하남까지 연결하는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하남선’도 12월에 전 구간이 개통된다. 신설되는 역은 강일·미사·하남풍산·하남시청·하남검단산역 5개역이다.

연내 노후 지하철역 5개소(종로5가·동대문·신설동·영등포시장·군자역)가 리모델링을 거쳐 수준 높은 ‘문화예술철도’로 바뀐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년·창업·미디어 관련 지원시설들이 대거 문을 연다. 8월에는 청년들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상담 컨설팅,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 동대문’이 개관한다.

/김현정 기자

##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내년 착공 ‘청신호’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

경기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내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1일 고양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6일 ‘2020년 제2차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조건부 통과를 결정했다.

행안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고양시

매년 3차례 개최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투자사업이 총 200억 원 이상일 경우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해 심사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이미 지방공기업 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 중으로 이번 중앙투자심사는 고양시의 산하기관 출자 및 정책지원금을 1044억원 가량 투입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

이번 통과로 선행해야 할 행정절차가 완료돼 실시계획인가만 남은 상태다.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고양 일산서구 법곡동 일대 85만여㎡에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산업, 방송영상콘텐츠 사업 등 차세대 혁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5 | 해질 / 19:57

7월 2일 (木) 음력 : 5월 12일

수도권 날씨 29~2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7/29, 동두천 18/29, 가평 17/29, 파주 18/28, 서울 20/29, 양평 19/29, 수원 20/28, 용인 20/28, 평택 18/29, 백령도 18/24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